

3

고대한일관계 (古代韓日關係) 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에가미(1964)에 의하면 가야(伽耶)의 왕들은 삼한(三韓)시대 진왕(辰王)들의 후손들이고, 그중에 미마키(崇神)라고 부르는 왕이, 남한의 미마나(任那) 기지(基地)로 부터 출발해서 북 큐우슈우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에가미는, 니니기(瓊瓊杵尊) 지휘 아래의 천손강림(天孫降臨)이란 신화는, 바로 스진(崇神)의 활약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에가미는, 미마키가 4세기 초에 미마나(伽耶)와 큐우슈우(九州)로 구성된 한일연맹국을 세웠는데, 4세기 말 그의 후손 진무(神武)가 동쪽으로 진출해서 킨키(近畿)지역을 정복할 때까지, 그 연맹국의 수도는 큐우슈우에 위치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에가미는 야마토 왜의 왕들이 텐지(天智)대에 이르기 까지 이 한일연맹[伽耶·倭聯盟]을 통치 했었는데, 텐지 대에 와서 왜의 왕이 일본열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다고 믿는다. 에가미는 일본이 자신의 역사를 보는 시각에 변화를 일으킨 것은 텐지(재위: 661-672년) 이후 부터 였다고 믿고 있다.

필자가 에가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연구의 초점을 백제(百濟)사람들에게 맞춘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왕족은 고구려를

창건한 씨족의 후예인데, 이들은 바로 부여(夫餘) 지배씨족의 후손인 것이다. 4세기 후반에 일본을 침공해서 야마토 지역을 정복한 것은, 한성백제(漢城百濟) 통치자가 충심으로 축복을 해준, 백제 왕족 호무다(譽田別, 應神)가 인솔해간 일단(一團)의 백제 사람들이었다. 미마나(任那)는 호무다 원정군의 작전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결과적으로 야마토 조정과 오랜 기간에 걸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로 부터, 그속에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적인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체로 치는 것 모양 하나하나 잘 가려내야 한다.⁷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필자의 연구는 이들 고사기, 일본서기 등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고대 일본 역사에 대해 얼마간의 사실적인 정보를 채집해서 분석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필자가 한 노력을 이해하려면, 독자들 모두가 이 초기시대에 대해 정확한 역사적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야요이(彌生)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한반도의 삼한(三韓) 사람들이, 특히 가야(伽耶) 지역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큐우슈우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삼국시대(三國時代) 동안에는, 백제 사람들이 그들 나라의 문화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커다란 무리를 지어 바다를 건너와, 당시로는 신세계 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 (근기지역)에 정착했다.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한반도에서 새롭게 도래(渡來)한 이들이, 토착 원주민들과 원만하게 융합해서 야마토 왜를 창설했다는 행복한 얘기 인 것이다. 이 간단한 역사적인 경위(經緯)만 알고 있으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읽는 그 누구라도, 한국과 일본의 깨끗한 파노라마를 — 좀더 좁혀 본다면, 이

⁷센섬(1931: 2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야마토) 왕조가 추구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신화와 전설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배열을 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고사기, 일본서기라는 것은 하나의 지배 씨족이 다른 씨족이나 종족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새로 다시 쓴 것이라고 말한다 해도 그리 지나친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옛날의 백제와 야마토 왜의 왜곡되지 않은 풍광(風光)을 — 볼수 있으며, 또 일본 역사의 뿌리에 대해 값진 통찰력을 얻게 될수 있을 것이다.

대륙의 백제와의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야마토 왜가 것처럼 발전한다는 것이 불가능 했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야마토 귀족계급과 벼(部)의 조직 모두가, 백제 사람들과의 공동 유산을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야마토 왜의 창건자들은 백제의 통치 가문 출신인, 일단의 군사적 지도자들 이었으며, 이들은 신세계를 찾아 바다를 건너 온 것이다. 당시 큐우슈우는 이미 구세계 였기 때문에, 그들은 야마토 땅에서 신세계를 찾은 것이다.⁸ 고고학적 물증들은 『정복』이 야마토 왜의 성립에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호무다(應神)는 백제에서 건너온 군사적 지도자 였으며, 거의 틀림없이 백제 왕족의 일원 이었을 것이다. 오오진(應神)과 5, 6, 7 세기 황실 후손들이 모두 백제 왕족의 조상을 가졌다는 사실이, 이 시대 일본과 백제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그 유례없이 밀착된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 유대를 설명해 준다.

일본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고대 한국의 역사를 연구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영향을 모르고서, 고대의 일본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한것이다. 누구든지 일본을 연구하려면, 한국의 존재를 어떤 형태로든지 도입해야 한다 —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든 『대륙』이라는 형태로든지, 혹은 동아시아 문명의 지배적 원천(源泉)이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의미 할수 있는 『중국』이란 표현의 형태로든지.

넓은 역사적 안목이 없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읽게 되면, 그저

⁸아오키(1974: 18)는, “북 큐우슈우와 일본 혼슈우의 서쪽끝 부분은, 이미 야오 이시대 농민들이 굳게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3세기와 4세기 이민들은 세토 내해나 시코쿠(四國) 남부해안을 거쳐 현재의 오오사카-나라 지역으로 갈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신대(神代)의 정교한 전설들, 천손강림(天孫降臨)의 설화, 그리고 토착적인 종교라고 칭하는 신토오(神道), 등등의 이야기 책을 읽는 꼴이 되고 만다. 불행하게도 일본의 국학과 학자들은 이런식으로 고사기·일본서기 기록을 받아 들이면서, 명치시대의 일본 사람들을 미혹시켜, 급기야 1945년의 그 큰 국가적 패망과 환멸로 국민을 인도했던 것이다. 오늘날 일본사람들이, 사전(事前)에 백제나 한국을 가능한 모든 해답에서 무조건 배제시켜 놓고 나서, 계속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야마토 왜가 언제, 어떻게 성립 되었느냐?” 같은 질문의 해답을 찾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측은한 감이 들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전후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은 바로 일본식 제도와 일본 사람들의 근면, 희생, 협조정신의 승리를 의미 한다고 말할수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또다시, 그들의 성공적 경제성장이 일본 종족의 순수성, 특수성, 그리고 우월성때문 이라고 믿도록 유도 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몇십년에 걸친 경이적 경제성장도 어찌 할수 없을 정도로, 일본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등감이, 그들을 극단적으로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지방색이 강하도록 만드는 것 같다. 바로 오늘날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을, 다같은 인류의 하나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흑시나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인종이나 민족보다 열등한 것인가, 또는 우월한 것인가를 증명해 보려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전후 일본 경제의 기적은 다시 한번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종족상으로, 문화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아주 특수 하다는 병적 쾌감에 도취 하도록 만드는것 같다.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성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인종, 다민족 세계를 화평스럽게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